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Y 2021 |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 VOL. 109

2021년 첫 골프대회 Sunset Valley에서 열려

골든클럽의 첫 골프대회를 4월 22일 어렵기는 해도 모두 좋아하는 NJ의 Sunset Valley 골프장에서 가졌다. 오랜 pandemic 동안 사람 얼굴 대면하고 싶으셨는지, 대부분 회원이 vaccine을 맞으셨는지 무려 38명(남 30; 여 8)이 참가하였다. 진봉일(공대 50), 김익성(상대53) 대선배님 그리고 작년에 건강이 여의치 않아 고생하셨던 손경택 전 회장님, 정도현 선배님의 건강한 모습이 특히 반가웠다. 참가자 모든 분의 반가움으로 가득한 웃음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온도가 50oF미만을 돌고, 찬바람이 시속 30마일 가까이 되는데 어렵기로 소문난 Sunset Valley 코스에서도 밝은 얼굴로 신나 하며 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새해, 새봄을 맞는 희망과 기대 그리고 올해는 Covid에 밀려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이준행 명예회장께서 상금으로 $1,000을 쾌척해주셔서 상금이 평소보다 수 배 늘어나 par 3 hole 부근에서는 골퍼들의 기대가 증폭되는 것이 엿보였다.

골프가 끝난 후에도 거의 한 분도 먼저 떠나지 않고 19 hole에 모여 반갑게 담소하는 모습이 단지 상금이 커진 탓만은 아닌 것 같았다. 간단한 저녁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2등에는 한영수/조승자 회원 그리고 1등은 김익성/김정필 회원이 수상했다. 4분 모두 잘못 쳤다고 우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엄살이었는지 실제로 우리 凡 골퍼처럼 온도, 바람 영향을 많이 탔는지 모르겠다. 5월 19일로 계획된 NY 동창회 골프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발행인: 홍종만 • 상임고문: 정해민 손경택• 감사: 오순문
편집위원: 윤현남(편집장) 김정필(간사), 오순문, 주상선, 오 성, 김병순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 hong1945@gmail.com • 646-342-2667

뉴욕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춘계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1년 5월 19일 (수)
시간: 오전 11시 30분 Shotgun
(10시 반까지 도착 바랍니다.)
장소: Walkill Country Club
주소: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연락: 김정필
(201)965-7759
email: jaypkim@keiusa.com

골프대회 결과 보고
4월 22일 Sunset Valley

시상

Gold Tee
1등 김익성 (-3)
2등 한영수 (2)
3등 한태진 (3)
3등 최순채 (3)

White /Red Tee
1등 김정필 (5)
2등 조승자 (7)
3등 손대홍 (11)
3등 박준구 (9)

Par 3 3번 최병우
6번 손갑수
12번 손경택
15번 최순채

수입

참가비	$3,800	
상금협찬(이준행)	$1,000	
수입소계		$4,800

지출

그린피/디너	$3,622	
상금	$1,000	
김밥/물	$ 234	
지출소계		$4,856
결산		-$ 44

Harriman Park 등산을 다녀와서

이행순(미대60)

COVID-19으로 못 모였던 단체행사 등산을 간다는 소식에 맑은 공기,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가는 모임이기에 또 모임의 장소가 Palisades Pkwy 4/5 사이라 기에 Tolman Park 산행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고 친구한테 날씨도 좋고 피크닉 가자 하니까 흔쾌히 가겠단다.

아침 일찍 서둘러 김밥집을 들리고 모임 장소에서 주차를 해놓고 그 근방이려니 했더니 회장님 차를 타고 Tuxedo Town을 지나 Harriman Park이 여정이란다. 중고등 시절에 피크닉 가는 것 같아서 잘 검토도 않고 따라나선 것이 오늘의 큰 오산이며 또 한 큰 축복이기도 하다. 능선을 타는 산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전혀 몰랐으니까-- 모두 산길에 익숙한 차림에 등산화, 등산 스틱, 날벌레 막는 얼굴망까지 완전 복장을 한 모습과 우리 둘은 가벼운 운동화에 골프채로 만든 스틱 한 짝이 고작이었으니-- 더더군다나 가장 고령의 우리가 능선을 따라 오르고 내린다는 것은 경력 체력 모두가 역부족이었다.

날씨는 쾌적하고 공기도 맑고 일행도 너무 좋은데-- 몰라서 용감하다고-- 그동안 매일 열심히 걸었으니 3, 4마일 정도 거뜬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오산이었다. 가파른 바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여러 번, 이제 다 왔나 하면 더 가파른 바위, 같이 간 친구는 쉬운 산행이란 내 말에 속아서 왔다고 Never Again을 눈만 마주치면 거듭 되풀이한다. 친구를 도울 자신은 전혀 없으니깐 다른 분들께 맡기고 나만이라도 해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오늘이 내 남은 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동원해서 열심히 앞사람을 따라갔다.

여하튼 정상 목적지에 이르니 모든 것이 눈 아래 내려다보이는 높이에 올라와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산도 골짜기도 내려다보이고 구름도 하늘도 너무 가까이 있는 기분 '와우'-- 이런 성취감에 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산행에 큰 배낭을 메고 올라오신 분들, 배낭 속에서 버너, 의자, 그릇, 물, 라면, 양파, 깍두기까지 부글부글. 뜨거운 국물에 라면, 김밥, 과일, 커피까지 마시고 다시 하산 -- 힘들어도 이런 즐거움이 있다니 매일 6,000보 정도 걸으면 충분하다고 좋아했는데, 총 16,632보 7.3 마일이라 한다. 그래도 모두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파킹장에 이르니 하루의 여정 끝. The Great Adventure of My Life!! 나와 내 친구 다시 활짝 웃으며 오늘 주심에 감사했다.

골든클럽 회장님 이하 일행 멤버님들 고맙습니다

정해민 고문 심장 수술 회복 중

2년전에 한 Denture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위한 심장 검사 중 수년 전 치료한 스탠트의 석화 현상을 발견하고 4월 8일에 긴급수술후에 7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게 되었다. 의사말로는 수술은 극히 어려웠지만 잘 되었다고 했다. 농담이겠지만 자기는 10년 감수했고, 나는 10년 더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 그 다음날로 퇴원하고 지금은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4월 22일부터 Physical Therapy를 최소 3개월 정도 받게 되어 있고 치과치료(Implant) 는 약 6개월 후에나 하게 될 것 같다. 돌이켜보면 이번에 치아 문제가 아니었으면 심장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경험이 지난 위장 수술 때도 있었기에 이는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홀인원

축하합니다.

이종대(약대65) 회원은 4월 20일 Westchester Scarsdale에 있는 Saxon Wood Golf Course의 109야드인 4번 홀에서 피칭웨지로 잘 날린 타구가 한번 살짝 튄 후에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 코비드로 지난해 함께 하지 못했던 BD Group의 친구들과 첫 나들이에서 잊지 못할 감격을 맞게 되었다.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4월 22일 골프대회 후 Sunset Valley Club Lounge에서 시상식을 함께하는 참가자들.

골프대회에 참가한 여성회원들 -왼쪽부터 홍선경 남종현 김은애 홍예경 천종화 이행순 조승자.

윤현남 손갑수 윤선구 이홍빈 조.

천종화 홍예경 홍선경 조.

4월 14일 Harriman Park 등반에 성공한 하이킹 조.

4월 14일 하이킹에서 조달훈 조승자 부부.

4월 14일 하이킹에서 홍종만 홍예경 이종대..

4월 14일 하이킹에서 김재경 부부.

故 장동만 회원을 추모하며

故 장동만 회원께서는 1936년 1월 10일 서울 마포 도화동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마포국민학교 6년을 반장을 했으며 당시 특차였던 서울상고에 진학, 1955년 서울문리대(철학과) 입학하여 단기 군복무(18개월)를 마치고 1961년 9월에 졸업하셨습니다.

취업난이 극심하던 1962년, 800여 명이 응시한 동아일보 공채 4기 4명 채용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여 9년간 편집부 기자로 근무하고 1970년 말 도미하여 1965년 10월에 결혼한 고애자(사대58) 동문과 Health Food retail store를 운영하다가 2,000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으로, 언론 통제 하에서 김영삼 야당 총재 단식 투쟁을 보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뉴욕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실어 국내 언론에 보도되게 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동아일보 뉴욕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조국이여, 하늘이여", 3년간 뉴욕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수필을 모아 "살아가며 죽어가며" 그리고 "아! 멋진 새 한국", "고뇌하는 젊은이여" 등의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두 큰 죽음'의 Elegy

장동만

두 '큰 죽음'을 맞아
온 세상이 슬퍼한다
생명・죽음에 크고 작음이 있으련만
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늠한다/

대영제국의 세자빈 다이애나
한창 나이에 비극적인 생의 마감
'貧者의 어머니' 테레사
天壽・소임을 다하고 이승을 떠났다/

이 세상 부귀/영화 한 몸에 지니고
호화/사치 한껏 누리면서도
한 女人으로서 人間的인 苦惱에
몸부림 치면서 '톡톡 튀던' 다이애나/

부유한 가정을 저버리고
세속의 행복과는 아예 담 쌓은 채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여든 일곱의 평생을 바친 테레사/

애처러운 한 죽음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한다
거룩한 또 다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에이게 한다/

(中略)

어찌 보면 성(聖)과 속(俗)의
차원 다른 두 삶과 죽음
하나,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 '큰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

(中略)

87세 천수를 다하고 善終한 테레사
"그동안 그만큼 수고 했으니
이제 그만 편히 쉬어라"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간 거룩한 죽음/
잇딴 사랑의 逃避 행각(?)을 벌이다
不意의 사고로 36세 짧은 삶을 마친
'大衆의 偶像'의 悲劇的인 죽음
그 죽음에도 무슨 뜻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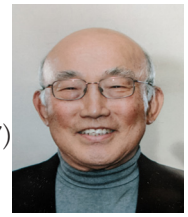
(中略)

世子嬪도 가고 聖女도 가고…
두 '큰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는 범인(凡人)들은 눈물지며
人生의 無常 虛無를 또 되씹는다/

(저서 "살아가며 죽어가며" 중 "詠史詩 네 편"에서)

"보시게, ... 맘에 담는 '고별사' "

장동만 선생님 기리는 '추모/서삿말'



이홍빈 (의대57)

그 하나(Ⅰ), 추못 말 .

헌슨강 건너
맨해튼 넘겨다 보며
생각찬 긴 세월/늦 세월껏 맘 달랬지라

흐뭇한 친구 하나
나이 들며 늙어가며 사모하며
해마다 철마다 맘속 뿌듯한 벗이었지라

십오륙 성상 한 토막
그때 우리 고래희
자못 우린 지금으루 젊었지라

꽤는 좋아하는 맘
(쏘울 메이트) 친근한 맘
농하며 켱기며 배우며 (삼가외람)존경했지라

왜소한 체구 가녀린 체통
망가진 잇빨 따분한 의치
끼니 잡숫기 딱하구 부실했지라

이 양반 두 양주
발랄하기루 앞장 서
'기로회' The Older We Get (골프)회동 즐겼지라

꼭 숙제(?)같이 뭐 그런 배려
서둘러 대오는 바쁜 아침결에
'삶은계란''핫독' 쌍으루 짚백넣어 대령하곤 했지라

몇타 주구 받구 싱갱이 말구 우리
'파-3' 네홀 맘 편한 내기 기나 지나 비슷
의례 일불하나 홀에/지 몫 내놓곤 물러나는 양반였지라

매가리 없는/그치만 느릿 스윙에 끽 요만치
그중 짧은/내 드라이브 끽 조만치
어쩌다 그걸 비트하면 Hooray—
그렇게두 신나했지라

매번 환한 얼굴 들 나와모이는
그거루 마냥 좋아
푸른 초원 어울린 밖엣일 그거이 그저 무턱 좋아
(늘)그때가 (늘)그때마다 (늘)그때루 천국였지라

의례 어데루/늘 일루절루 '훗풀이'
'곁두리' 늦은점심 이른저녁 맥주로 모여앉은 그런 시간
'굿' 즐기구 모여앉는'잿밥' 그런 예삿일에 꽤는 땡겼지라

어차피 외롭구 적적함 그날루 둬 두구
무릇 고적을 그 하루 미뤄논이들 끼리 함께
같이 마냥 담소하는 그날 일탈 천국같은 하룻해 꿀맛였지라

(제각끔 물 오른 Endorphin 다 잡아 지니구
회심껏 돌아 간 집구석 나중 '제 둥지'에서
다시 평상 아웅다웅야 내 남 뭐 뻔했겠지라)

그새 어느새
그러문서 맘은 또
늘상줄창 다시 담 주를 꼽곤했지라
. . .
이 해 이봄철 이 양반
천지엣 뭇꽃 봄 바람나는 다시 이 철에
피식 이번엔 자진하듯 '천국'갔버린 당신이지라

돌아보는 정두 사랑두
아쉬울 얼굴두 모습두
진토되련 연기되련/천국 간대두
우리 끝내 허탈 무상하지라 .

그 둘(Ⅱ), 서삿 말 .

(가을에 '곪체'후 만강) 문안 하다가
(왜 겨우내 부디 쾌차) 문병 하다가
(오호 애재라 이른 봄) 애통 문상이련
. . . 자못 꽃으루 둘러 차마 당신 보내련

팔팔 혈기
젊었쩍엔
넘 멀기루 훗날 (넘보기나 했으련)

그러문서
ㅈㅣㄱㅏ무슨
'스피노자'였으련 '쇼팬하우어' '데까르뜨'였으련

'마로니에' 욱어진
(제 각) 꿈 마당'서울대'상아탑 다니기
(마포)먼길 ㅇㅏㅁㅏ통학 전찻길에(절치부심) 떡닢은 자랐으련

'사는거'이 뭔고
그래 '인생'이 뭐던고
그런 철학은 살쪘으련 때에 청춘은 즐거웠으련

혈기 펄펄 한창
의기 왕성 세월
'언론인'시절 펴낸 책으루 그전 이 양반 가늠했으련

나중엣 친구루 그런 우연였으련
훗날에 오천겊 하나
이런 귀한 인연졌으련

여러 성상 밉쟎은 싱갱이 켱기며 배우며 존경하며
한적했던 교우 그런 배려 만고강산 적적한 세월였으련
평생 집착 숫제 심오한
끝냇 허공도는 '철학'은
심오한 당착/'죽음'결말 'Well Dying'에 답을 찾았으련

펴낸 '죽음학'The Odes to 'Life and Death'
(살아가며/죽어가며) 여럿에게 여러 물음만 상재했으련
그러며 자가당착 (그)잠깐 제 명 살기였으련

그 '죽음학' 평생 싸놨다 풀었다
그러며 몰두 여탯껏 심각할바(위이부쟁/상선약수)
아이러니 '이숍우화'쯤 한번쯤 '대차 대비' 비유해 봤으련

(평생을 우기구
안 아프던 이 양반
강단으루 병 하나 없더니)

이러저러 쇠잔겹쳐/멀쩡치 못해
이 겨우내 병치레/병원출입 헤어나질 못했으련
혼잣 마냣님 힘든만큼/각별 '힘내'셔야 했쟎으련

산단거이 뭣였던지
한낱 인생이 뭔지
나중 아마 저승천국 뉘있어 수긍가는 '철학'이 있으련

살았음에
살아 좋은 세상동안
그 때에 그 많은 왜 번뇌였으련

육신이 떠나구
그제야 혹여 행여
날아갔버린 맘의 창문이 열리련
. . .
주인 없을 당신 이름이련
진토껏 있구 없구/천국향한 일말 그 허황 무상함이여
심중에 남았는 벗으로서 이름만 이련 .

(주: '기로회'는 장동만 선생이 작명한 그룹/ '나이 들수록 좋은, The Older We Get'이란 어거지, Aesop's 우홧적 그런 억지)

송죽철인(松竹哲人) 장동만

친구야, 부디 고이 잠드시게나!

정해민 (법대 55)

약력하면 보통 무슨 단체나 조직의 '장' 자리한 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오늘 그런 것보다는 그의 성품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은 그와 나는 그러니까 그가 70년대 미국 콜로라도 주로 왔다가, 76년도에 뉴욕으로 온 후 지금까지 40여 년간의 친구 사이입니다. 한 2년 전까지 만 해도 거의 매주 아니면 격주로 몇 친구들과 점심 아니면 저녁 식사를 같이하면서 환담을 나누곤 했었는데 그것이 차츰 줄어들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되다가 최근 1년 동안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전혀 만나지를 못했네요. 아쉽고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장동만 형의 성품: 한 마디로 송 죽 (松 竹) 소나무 송, 대 죽 거기에다 철학적인 사람이라는 철인(哲人)을 붙여, 송죽철인(松竹哲人)이라고 제가 불러볼까 합니다.

대나무 죽(竹): 먼저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다. 곧다는 것은 '바르다, 비뚤어지지 않았다, 정직하다, 정확하다, 올바르다'라는 말이지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집이 '세다, 꺾이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외골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법 없어도 살 수 있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송(松) 자인데, 소나무는 사시 푸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소나무를 상록수(常綠樹)라고도 하지요. 사철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철인은 철학적인 사람이라는 말인데 철학 하면 우선 어렵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인데 사실 그의 글이나 말이 한참 생각해야 이해가 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지요.

송죽철인, 장동만, 친구야, 부디 고이 잠드시게나!

장동만 선배님의 죽음학 오디세이

곽선섭 (공대61)

이 책은 장 선배님의 만년의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그분의 박식하고 고매한 성품을 엿볼 수 있고 주위 동년배들께는 많은 공감을 불러왔을 것 같고 후배인 저로서는 애정이 담긴 메시지로 보여 그 책에 나온 가슴에 와 닿는 고별사 같은 문구들을 숙연한 심정으로 되새기며 명복을 기원해 봅니다. 글 저변에 깔린 그분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저로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분에게 累가 되지나 않을까 저어됩니다.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지혜의 걸작이자 가장 어려운 章이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 80여 평생을 탐구하신 내용이 그 책 속에 담겨있는 듯합니다.

"熱情을 다 써버린 이들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숫자로 나타난 나이보다는 얼마나 정열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늙었느냐를 가리키는 바로미터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죽음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땐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달관할 수만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死後는 正體와 實體를 알 수 없으니 저 세상으로 갔다 할 것이 아니라 迷宮에 빠졌다 해야 할 것 같다. 사후는 있고 없고, 천당 지옥이야 있고 없고, 그저 사는 동안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죽을 땐 흔쾌히 죽으리라. 삶의 시간도 짧은데 알지 못하는 사후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 인생을 더욱 짧게 할 수 없다."

"Heaven 운운은 the dark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fairytale일 뿐 大罪 없이 살고 考終命, 천수를 누리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큰 복이거늘,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거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누구는 천당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러한 문구에 장 선배님의 생활철학, 종교관 등이 담겨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종교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서, 공자 말씀, 法句經 같은 데서 많이 인용하셨고 오히려 더 求道자의 생활을 하신 같습니다. 이는 꼭 교회나 법당에 다닌다고 신앙인이고 안 다닌다고 신앙심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문구에서도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내세가 있다면 천당이나 극락세계 같은 곳에 가셔서 영락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자연 체험, 텃밭을 가꾸며

오성 (법대76)

미국에 와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연과 매우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처음에 맨해튼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딸 아이가 생겨 뉴저지로 이사 온 후에는 아름다운 주위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25년 가까이 살고 있는 Leonia 집 주위에서 다람쥐, 너구리, 사슴은 물론 Turkey들도 종종 마주친다. 추수감사절이 여러 번 지나갔는데 Turkey들이 아직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야생 동물들에게 꽤 안전한, 살만한 나라임을 느꼈다. 뉴저지에서 처음 살았던 아파트 앞에는 널찍한 잔디밭이 있고 수양버들 큰 나무가 있었다. 저녁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미국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선 서울의 주택가에 살아서 반딧불이나 다람쥐, 사슴을 본 적이 없었다.

회사 일로 20여 년 바쁘게 살다 2010년경 뉴욕 Up-state에서 잠시 농장 일을 경험하게 됐다. 모 명상단체에서 70에이커 농장을 구입하여, 십여명이 매일 단전호흡 명상 수련을 하며 영농 체험을 했다. 목초지 일부를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채소를 경작할 수 있는 밭을 만들었다. 흙을 두둑하게 쌓아 올린 이랑에 막대기로 구멍을 낸 후 무우 씨를 심으니 얼마 안 가 무우들이 탐스럽게 자라났다. 사슴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친 밭에서 토마토, 맷돌 호박, 감자 등을 키웠다. 햇볕을 받고 밭에서 익은 토마토의 맛은 마트에서 사 먹는 토마토와 완전히 달랐다. 가을에 두둑을 허물어 감자와 고구마를 캐는 경험은 난생 처음 해보았다. 넓은 목초지에 소똥을 뿌리고 옥수수 씨를 심으니 달콤한 옥수수가 수확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열렸다. 비록 달팽이가 구멍을 냈지만, 온실서 재배한 배추들을 포대에 담아와서, 다니던 교회 교인들과 나눔하모니(김정길 음대 선배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영농의 보람을 느꼈다.

하산하여 다시 속세(?)에 내려왔지만 나에게 강한 인상을 준 영농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다. 봄이 되면 한아름에서 고추, 오이, 호박 등의 모종과 씨앗들을 사와 집 주위 작은 땅을 일구어 심었다. 지지난해엔 오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한 지난해에는 호박 농사가 잘되었다. 해마다 깻잎은 별 탈 없이 잘 자라 거의 매일 싱싱한 잎을 20여 장 따서 쌈을 싸 먹었다. 방울토마토와 바질은 아내가 좋아해서 매년 키우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그동안 가지, 오크라, 스트링 빈, 꽈리고추, 로메인, 열무, 쑥갓, 시금치, 단호박, 파, 당근, 참외, 순무, 케일, 생강, 스위스차드(근대) 등 채소류와 로즈마리, 딜, 차이브 등 허브류 재배도 시도해보았는데 스트링 빈은 씨를 심은 지 50여 일 만에 수확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땅에 꽂아 놓은 포도 가지는 어느덧 10미터 이상 자라 작년에 처음으로 포도송이가 열렸다.

탐스럽게 열린 호박

이른 아침에 물을 주러 나가보면 꿀벌들이 벌써 나와 열심히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 기특했다. 호박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 호박을 키울 때는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 원순만 남기고 곁순들을 제거하고 덩굴손들도 잘라준다. 처음에 수꽃들만 연달아 피어서 영양 손실 방지 차원에서 다 따냈는데, 암꽃이 나중에 피었을 때 수정을 시켜줄 수꽃이 없었다. 10센티미터 정도 큰 호박이 달려있던 암꽃도 수정을 못 받으니 시들어 떨어졌다. 비상이 걸린 나는 수꽃 봉오리를 애지중지하며 얼른 피어나기를 고대했다. 드디어 활짝 핀 수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암꽃술에 하나하나 비벼 수정을 시켜 호박을 여물게 할 수 있었다. 수꽃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었다. 1년생 채소들이 가을에 생을 마감해 밭을 정리하고 나면 긴긴 겨울이 허전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식물, 다년생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딸기가 그중 하나다. 화분에 심어 놓았던 딸기는 푸른 잎으로 겨울 추위를 견뎌냈다. 포트리 화원에서 사다 심은 아스파라거스 뿌리들에선 올봄에 2ft 가까이 새순이 솟아났다. 지난해 가을에 심은 마늘은 1ft 이상 덮인 눈과 혹한의 겨울을 나고 올봄에 50cm 정도로 성장해 강인한 생명력을 과시했다.

식물들이 땅속에서 양분을 흡수해 물과 햇빛으로 각양각색, 각종 맛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실로 경외롭고 존경심이 들 정도이다. 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늘어 사과, 레몬, Avocado 등 나무 씨앗을 발아시켜 심는 실험도 해보았다. Ridgewood 옛집 근처에서 가을에 떨어진 은행알들을 주워 몇 개 땅에 심었는데 하나가 싹이 터서 2미터 가까이 자랐다. 사과나무도 씨앗이 발아해 2ft 정도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떤 나무든 발아시켜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Avocado 씨들도 발아해 10그루 정도 자라고, Papaya도 수십 개가 30센티미터 정도까지 자랐으나 겨울을 넘기진 못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뉴저지에서도 혹시 Avocado와 바나나, 오렌지 나무 등도 키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보았다. 일본에서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벚꽃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피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Florida주의 일부와 뉴욕 맨해튼을 비롯한 미 동부 해안지역이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다.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땅이 넓은 나라이다. 곳곳의 놀고 있는 땅에 사람들이 사과, 포도, 복숭아, 살구, 배, 체리, 크랜베리, 자두, 감, 밤, 대추,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놓고 조그만 텃밭을 하나씩 가꾸면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를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밭에 나가 물을 주고 김을 매며 햇볕을 받고 몸을 움직이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구 식량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싹을 틔운 아보카도 나무

회원 명단 (108명 / 2021-4-24)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오인석	이홍빈	최진영
강에드	김영덕	성기로	우규환	임도혁	최철용
강영선	김영만	손갑수	유무영	임호순	최학주
계동휘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정도현	추재옥
고애자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정수일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조달훈/	한융오
곽선섭	김재경	손옥화	이국진	조승자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근숙	이 준	정해민	허용웅
구달회	김종율	송웅길/	이대연	조상근	홍사만
권정덕/	김창수	송현자	이대영	주상선	홍정표
홍선경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주재양	홍지복
권영대	김한종	신진식/	이수호	진봉일	홍종만/
권태전	김현중	이정자	이용대	천병수/	홍예경
김광수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천종화	
김광현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 성	이종석	최병우	
김문경	박준구/	오순문	이준행	최수용	
김문언	최숙희	오용호	이준희	최순채	
김병순	박희병	오유섭	이행순	최준희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63명 / $6,300 / 2021-04-24

강에드	노용면	오순문	임도혁	홍지복
강교숙	민준기	오용호	임호순	홍종만
계동휘	박준구/	오유섭	정수일	홍예경
곽상준	최숙희	오인석	정해민	
곽승용	박희병	우규환	주재양	
권정덕	배상규	유무영	진봉일	
김광수	성기로	윤종숙	천종화	
김광현	손갑수	윤현남	최병우	
김동건	손경택	이대연	최순채	
김병순	손옥화	이용대	최준희	
김상만	송학린	이종대	최철용	
김익성	신진식/	이종석	한영수	
김정필	이정자	이 준	한융오	
김한종	송근숙	이행순	한태진	
김현중	양인회	이홍빈	홍선경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18명 / $19,500 /2021-4-24

곽승용300	송학린1,100	우규환200	정해민800
권정덕200	신진식300	이준행13,000	최철용300
김한종300	양인회200	이행순200	한태진500
성기로300	오용호100	이홍빈100	
손경택1,000	오유섭500	임호순3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3명 / $600 /2021-4-24

남종현
김한종
윤종숙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4-24)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Sunset Vally 38명 참가
5월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Walkill Country Club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17일(목)	Picnic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9일(목)	Picnic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1일(목)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Golf Outing, Hiking, Picnic등 야외행사는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나 신년교례회, 단체여행등은 방역지침에 따라 삼가하고 있음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정자 (가족)
양인회 (농대58)
오순문 (사대68)
이강홍 (상대60)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2시30분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 연회비 $100

□ 후원금 ($)

전화번호: Email:

주소 (Home):